

# 김효석 “정부 개편 지원금으로 농협 길들이나”

## ■ 국감 현장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 등 11개 상임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법 통과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 ◇ 농식품위

농식품위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액을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자본지원 계획을 보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지원금액 축소로 농협 개혁의 주요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질의하는 김효석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형 농협중앙회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자차액 보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농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돼지고기값 상승은 유통업자 때문”

이용섭, 관세 면제 불구 수입업자 ‘사재기’ 물품 안풀어

올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이 계속됐던 원인이 일부 수입업자들의 사재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배포한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수입산 돼지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달까지 36만2000t으로 지난해 28만8000t을 이미 넘어섰지만 도·소매가격은 오히려 37%와 38% 각각 상승했다”며 “2011

년 1월 수입산 돼지고기 도매가격 1kg당 6100원에 25% 관세를 면제할 경우 최대 1525원의 인하효과가 있어 1kg당 4575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도매가격은 6월 1kg당 9100원으로 계속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을 ▲구제역에 따른 공급 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유통과정의 문제”라며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 돼지고기 물량을 창고에 쌓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작년 구제역 당시보

다 훨씬 많으므로 공급부족이 아니며 최근 환율의 내림세에 따라 수입가격도 1kg당 당게는 664원, 작게는 147원의 낮은 금액으로 수입됐고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관세청장은 지역의 일반 보세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사재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간 보관된 물량에 대해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도 시장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체감실업률 7.9%… 지표의 2.6배

### 김성곤 의원 주장

실업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2일 오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7.9%로 공식

지표의 2.6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공식실업자(76만2000명)와 불안전취업자(46만7000명), 취업준비자(55만9000명), 구직단념자(21만명)를 합해 체감실업률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업률은 정부 통계 중 가장 논란

이 되는 지표로,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하 불안전취업자와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이 통계에서 빠져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8월 현재 공식실업률은 3.0%로 2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2%)의 절반도 안 되는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실업 등 체감 고용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제 고용상황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 문방위

이날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의사진행발언 신청으로 이어진 공방 때문에 이날 국정감사는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아 오가는 등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008년 11월 방송광고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조속한 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위헌 상태에서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미뤘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지 3년째인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미디어법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방송광고시장이 초토화됐다”며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미디어법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정부가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

관적인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미디어법 심의에 있어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제 와서 정부·여당 책임을 말하는 것은 정치쇼”라고 맞섰다.

## 여야, 미디어법 지연 ‘네티트’ 공방

## “민주주의 부정 의원 北 가라” 놓고 정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핵심은 매카시 논쟁이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보고 사임하라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정말 무지의 소산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유신독재 시절의 한

국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단지 가정이었을 뿐 야당 의원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교과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한시간여만에 정회됐다.

지난 19일 교과부 본부감사 당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 성매매 산업 8.7조원

우리나라 성매매산업 규모가 최대 8.7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성매매 거래 유형을 통한 전체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6.86조~8.71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다방, 이발소 등에서 이뤄지는 겸업형 성매매는 규모가 5.76조원으로 주목을 이뤘다.

또 휴게방과 휴게텔 등에서 이뤄지는 변종형 성매매의 경우 연간 166만건에 달하고 거래규모만도 총 2천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56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33-0220 송파점(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신촌역)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흥국생명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아울렛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6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2층 입: 031378-4183 부천점(부천대역) 입: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입: 071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입: 051818-8800 서면A점(서면-0016) 남포동점(부평역) 입: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터리) 입: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51-0100 진주점(중앙로터리) 입: 055745-3870 대구 동문점(동문네거리)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입: 053426-1511 남양주점(아카데미점) 입: 053425-7576 경북 포항점(북구) 입: 0540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 입: 054659-2288 광주 광우점(도림동) 입: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명) 입: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지평상가점(구.061705-8945) 전북 전주점(전북로터리) 입: 063225-5722 군산점(구.서생점) 입: 063446-1188 익산점(북부역) 입: 063838-6200 남원점(남원시장) 입: 063822-3628 대전 대전점(도심) 입: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터리)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6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근사거리)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겨레) 입: 043254-5110 대전점(043222-1177-8 충청점(삼천로터리) 입: 043652-1414 강원 강릉점(옥천로터리) 입: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평로터리) 입: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